

本郡에 流配된 사람들!

文獻에 의하면 本郡에 流配된 사람은,

丁若銓 (辛酉迫害 또는 辛酉敎難이라는 天主教 彈壓 事件으로 流配)과

崔益鉉 (江華通商守護條約 反對로 君父를 論駁했다는 理由로 流配)이다.

그러나 一部에서는 純祖 1年 (1801年) 辛酉 迫害時 丁若銓 外에 天主教人 金光年·任大仁·申召史·李光任 等 4名이 薪智島 (現 莞島郡 薪智島)에 權相學이 荏子島로 流配되고 김평묵 (號·重岩)이 崔益鉉 事件에 連繫되어 智島로 流配되었다고하나 流配에 따른 配本 謄本이나 流配記錄을 찾을 수 없어 金번 發刊한 本誌에서는 除外하고 丁若銓·崔益鉉 先生의 行蹟만을 資料調查하여 本誌에 掲載한다.

文獻에 依하면 本郡에 流配된 사람은 丁若銓 (辛酉迫害 (또는 辛酉敎難)라는 天主教 彈壓事件으로 流配)과 崔益鉉 (江華 通商守護條約反對로 君父를 論駁했다는 理由로 流配)이다.

그러나 一部에서는 純祖 1年 (1801) 辛酉迫害時 丁若銓 外에 天主教人 任大仁, 金光年, 申召史, 李光任 等 4名이 薪智島 (現 莞島郡 薪智島)에 權相學이 荏子島로 流配되고 김평묵 (號 重岩)이 崔益鉉 事件에 連累되어 智島로 流配되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配本 謄本이나 다른 流配記錄을 찾을 수 없어 金번 發刊한 本誌에서는 除外하고 丁若銓·崔益鉉 先生의 行蹟만을 資料 調査하여 本誌에 掲載한다. <編輯者 註>

● 丁若銓 (1758 ~ 1816年)

本貫은 羅州丁氏이며, 字는 天全, 號는 一星樓, 每心齋, 巽庵, 研經齋이다.

그는 京畿道 영천현의 마현 (마재마을)에서 父親 丁載遠 (1792年 진주현감 재직시 사망)과 母親 海南尹氏 (1770年 사망) 사이에서 1758年 4兄弟 (정약현,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李朝 正祖때의 學者로서 正祖 14年 (1790) 에 증광文科에 兩科로 及第하여 副正字, 抄啓文臣을 거쳐 1797年에 兵曹佐郎이 되었고 1798年에는 王命으로 嶺南人物考를 編纂하였다.

그는 南人系에 속한 學者로서 西學에 뜻을두어 天主教에 入敎한 後로 모든 벼슬을 버리고 天主教 敎理 傳道에 만 全力하였다.

國內는 宣祖 8年(1575) 7月부터 沈義謙과 金孝元의 派黨 싸움으로 東西로 分黨되어 黨爭으로 發展하게 되며, 東人은 南人과 北人으로 갈리고 그뒤 南人·北人·老論·少論 四色黨派로 갈라져 各派間 黨權싸움은 치열하여 극도로 混亂한 時期였다.

또한 李朝 建國 以來 國是로 삼아온 儒敎와 儒學은 勿論 固守되어온 鎖國의 基本政策에도 天主教 國內 進入으로 무너지게 되자 西學인 天主教(天主學)는 國法으로 嚴하게 禁止되어 있었다.

1800年 6月 28日 正祖가 世上을 뜨고 그의 아들인 純祖가 王位를 繼承하였으나 나이가 11歲라 너무어려 英祖繼妃인 貞純王后(金氏)가 垂簾聽政하게 되면서 天主教 彈壓은 絶頂에 달했다.

當時 天主教徒 가운데는 反對派인 南人들이 많이 속해있고 重要官職에도 많이있을 뿐만아니라 英祖 때 勢道家(洪國榮 一家)인 豐山洪氏도 들어있어 이들을 除去하기 위한 目的으로 自派의 上疎를 받아들여 天主教 彈壓을 命하게 된다.

“天主教(天主學·사학)은 祖上의 祭祀도 反對하는 不孝한 行動을 하며 自身을 길러준 父母나 나라의 어버이인 임금도 몰라본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양반·상놈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人間은 不等하며 모든 人間은 天主님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어 선량한 百姓들은 이를 모르고 물들어 가고 있다.

이 기회에 天主教는 물론 사학을 연구하는 者들 까지도 엄벌하여야하며 全원 채포하여 極刑에 처하라”

이 命令으로 1801年(純祖 1年) 2月 丁若鍾과 李承薰신부(丁若銓의 妹兄), 李家煥(李承薰신부外三寸), 權哲身 등이 逮捕되어 李家煥, 權哲身은 고문으로 獄死하고 丁若鍾과 李承薰신부는 서소문밖(現 蛤洞 入口)에서 斬刑(목베어 죽임)을 당했으며 1801年 5月 丁若銓과 丁若鏞은 流配命을 받아 羅州를 거쳐 丁若銓은 黑山島(牛耳島)로, 丁若鏞은 康津으로 流配되었다.

이 事件이 歷史에는 辛酉迫害(또는 辛酉 敎難)라는 天主教 彈壓事件이다.

丁若銓은 黑山島(牛耳島)로 流配된 후 1814年(純祖 14年)에 鱗類 73種 無鱗類 43種, 雜虫 4種, 海禽 5種, 海獸 1種, 海藻 35種에 관한 漢字名, 方言, 形態 習性 및 利用 등을 調査 記錄한 「玆山魚譜」를 編纂하고 流配後 16年만인 1816年에 58歲의 一期로 一生을 마쳤다. (年表參照)

編著: 嶺南人物考, 論語難, 易柬, 松政私議 등이 있다.

年 表

年 代	國 内	世 界
1758年	正祖執政 丁若銓 出生	
1762年	사도세자 뒤주속에서 사망	루소의 「민약론」 나옴
1776年	2,22 英祖 83 歳の 一期로 사망 正祖 즉위 丁載遠 (丁若銓 父親) 再 登用 (호조화랑)	美國獨立宣言
1778年		프랑스 美國獨立 承認
1784年	李承薰 그라몽신부로부터 영세 (세례명 : 베드로) 받고 天主教 서적과 십자가 상을 가지고 歸國 이벽 (세례명 : 요한), 권일신 (세례명 : 프랑체스코) 에게 영세를 줌 김병우집에서 주일예배	7月 元子를 王世子에 冊立함
1789年		프랑스 大革命
1790年	丁若銓 文科及第 (正祖 14年)	
1791年	湖南 진산군에 거주한 윤지충 母親喪 天主教 의식 으로 거행 그해 11月 正祖命으로 윤지충, 권상연은 사형에 처하고 진산군수 신사원은 귀양	프랑스 王權廢止 共和制 宣布
1792年	정재원 진주목사로 재직하다 사망 (4月9日)	
1794年	청나라 신부 “주문모” 신부 密入國	이란 통일
1799年		나폴레옹 집정
1800年	正祖사망, 純祖 즉위 (11歲)	
1801年	2月 辛酉迫害事件으로 丁若銓, 丁若鏞, 李承薰, 李家煥, 權哲身 逮捕 - 주문모 신부 자수하여 사형 - 丁若銓 黑山島로 流配 - 丁若鏞 康津으로 流配 - 李家煥 權哲身 고문으로 獄死 - 李承薰, 丁若鍾 斬刑 (황시영 밀서사건 적발)	露皇帝 폴一世 暗殺 알렉산드르一世 嗣位
1811年	- 洪景來 亂	
1815年		나폴레옹 세인드 헤레나섬으로 귀양
1816年	丁若銓 귀양지에서 사망	
1821年		멕시코, 에스콰냐로부터 獨立
1830年	로마敎皇廳 天主教 朝鮮敎區 設置 名義主教 : 부르기에르주교 (敎會 設立한지 46年만에 設置)	
1834年	純祖 사망 憲宗 즉위	
1837年	12月 암베스主教入國 (주교로서는 처음 入國)	

● 崔益鉉 (1833年~1906年)

本貫은 慶州崔氏이며 字는 贊謙, 號는 勉庵이다.

그는 1833年(음) 12月 5日 京畿道 抱川縣 内北面 嘉^한臣里에서 出生했으며 崔致遠의 遠代孫으로 和淑公의 27代孫이다.

華西 李恒老 系列의 文人으로 1855年(哲宗 6年)에 庭試文科에 丙科로 及第하여 成均館典籍, 司憲府持平, 司諫院 正言, 吏曹正郎(正五品), 新昌縣監, 司憲部掌令(正四品), 戶曹參判, 同副承旨를 지냈다.

1868年(高宗 5年)에 景福宮(太祖 3年(1394) 開國功臣 鄭道傳에게 命하여 12月부터 始作하여 太祖 4年(1395) 9月에 竣工한 王宮이며, 壬辰倭亂時 廢燼되었다가 高宗 때 重建) 重建에 따른 當百錢(新貨幣: 從來 流用한 葉錢의 百倍의 해당 意味)의 發行으로 國家財政 破綻을 들어 興宣大院君의 失政을 上疎했다가 司諫院의 彈劾을 받아 官職削奪을 當했으며 1873年 6月 承政院 同副承旨(正三品)로 再登用되자 反大院君 勢力과 함께 書院撤廢와 大院君의 政策을 反對하고 王의 親政을 主張하다 濟州島로 流配되어 圍籬安置되었다.

1875年 다시 풀려나자 1876年 高宗 13年 1月에 倭船(日本船)이 江都(江華島)에 들어가 閔氏親族과 通商修好條約이 論議되자 이를 反對하는 「五不可斥和議疏」(別添參照)를 上疏하고 不可함을 力說하다 君父를 論駁했다는 理由로 黑山島에 流配되어 三倍圍籬安置되었다.

先生이 黑山島에 流配된 當時 「配本謄本」의 流配日程(別添參照)에 의하면 1876年 1月 9日 務安邑에 到着하여 一宿한후 다음날인 10日에 出發하여 多慶浦律에 到着, 船便으로 岩泰島, 八今(八禽島), 其左(其佐島), 都初(都草島), 飛禽都事岩을 거쳐 2月에 小黑山島(牛耳島) 島民 文寅周의 집에 館을 定하였다. (配本謄本 및 流配日程 參照)

그는 流配中에도 많은 門下生을 가르쳤으며 1878年(46歲) 4月에는 石工을 불러 淺村里 石壁에 「箕封江山 洪武日月」 「指掌岩」이라 새기도록 命하고 石壁의 이름을 指掌岩이라 하였다.

1879年에 流配가 풀리자 鄉里로 돌아가 후진양성에 全力하였으며 1895年 宮内府 特進官으로 再登用되고 中樞院議官, 議政府贊政, 京畿道 觀察使等에 任命되었으나 全部 辭退하였다.

1905年(高宗 9年) 11月에 韓日條約(乙巳保護條約 또는 五條約)이 締結되자 全羅道 泰仁, 淳昌에서 弟子 朴秉瓚, 林樂等과 의병모집을 하여 抗戰하다 1906年 全羅道 淳昌에서 日本憲兵에게 잡혀 同年 9月 對馬島로 拘囚되어 日本官憲들의 온갖 고문을 이겨내며 食飲을 全廢하고 鬪爭하다 同年 11月 17日 73歲의 一期로 殉節하였다.

先生의 遺骸는 1906年 11月 21日 還國하여 國內에 모셨다가 1909年 義兵活動의 核心地인 忠南禮

山郡 광시면 관음리 大鳳首山에 改葬하였다.

先生の 流配時 遺蹟으로는 指掌岩 刻字와 1924年 9月 門下生일 吳駿善, 任東善이 建立한 勉庵崔先生謫廬遺墟碑(別添參照)가 있으며 遺族으로는 直系 玄孫으로 崔昌奎教授(現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가 있다.

● 5 불가척화의소 (五不可斥和議疏)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니 저들의 청대로 따른다면 반드시 侵略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亂亡에 이르는 첫째요, 저들과 通商을 하게 되면 우리의 物貨는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한정이 있으나 저들의 物貨는 淫奢奇玩의 似奢品이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므로 저들의 似奢品이 무한정하게 들어온다면 나라의 美風은 무너질 것이요 三千里江山은 황폐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亂亡에 이르는 둘째이며, 저들 倭人은 사실로는 洋賊이라 통상이 되고나면 바로 邪學과 天主學이 들어와 온나라에 퍼지게 되면 애비없는 자식이 되고 임금 없는 신하가 될 것이니 이것이 亂亡에 이르는 셋째이고 통상이 되면 저들이 나라안에 들어와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財帛과 婦女子를 겁탈하는 등의 일을 뒤라서 막을 수 있단말인가 人倫은 땅에 떨어질 것이요 하루도 평안한날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亂亡의 네째이며, 지금의 이 일이 丙午年의 講和와 다를 것이 없으니 그때에 文正公 金尙憲 忠正公 洪翼漢등이 主和者들의 주장을 아홉번 죽을지라도 돌이키지 아니한 것은 저들 淸國이 仁義를 빌어 말하였으나 사실은 夷狄임을 알기 때문이라 이번의 交好도 以小事大인즉 侵虐의 患亂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으리오 이것이 亂亡의 다섯째이다.

● 配 本 謫 本

義禁府爲圍籬安置事節啓下教崔○○右人段承 傳內制倭自制倭斥洋自斥洋則今番倭船五 ○來何以的知其與洋合同乎藉日倭曰倭爲洋之前矛亦各有應變之道矣崔○○之投疏忽以矛爲關邪之不嚴者然倡爲?惑一時之計做此誣逼君父之疏肆然指斥之指斥之不足至於恐動之恐動之不足至於詬罵之其中數三句語是堂今日北面之臣所敢道所忍言者乎情狀之閃忽包藏之陰慝固當斷以典刑而自有斟量者存崔○○特貸一櫻黑山島圍籬安置三倍道當日押送罪上項罪人崔○○道內羅州牧黑山島圍籬安置而以承 傳內辭意具罪目今去府都事韓鎮泰亦中準授三倍道當日押送爲去乎一路各官是在如中罪人所騎刷馬一匹及定收校刑吏軍人次次交替無弊護送爲乎矣到配即時與地方官眼同罪人崔○○身乙圍籬安置後舉行形止依例啓 聞向事

● 流 配 日 程

○九日辛未時牧師管將鎖以行中緊用喝刑吏驢行三十兩裁家札及李友書付李吏晚發至古莫院中火夕至「務安邑」. 朴五衛將宿主体供朝夕一行四人·五人當之小頃主体李雲夏出現即甲子五儒之一也從容叙

話其胤凡錫年方九歲命前納拜○十日壬申晴主倅以公務不得來別遣吏傳喝嚙以酒饌飯後發行二十里至「馬院」火中于吏房金樂炯家主供酒物及一行午飯夕至「多慶津」作廳與都事件宿夜雨蓋自京至羅州邑七百四十里羅州至武(務)安邑六十里務安至多慶津頭六十里合八百六十里○十一日癸酉朝雨晚晴發至津頭宋朴兩友並落後作別遂登船水行六十里至「岩泰島」宿○十二日甲戌陰風飯後發船行至里許逆風還泊因留宿夜逢黑山文姓人略聞其中風物○十三日乙亥時亦以風勢留宿○十四日丙子明風勢可慮因櫓渡前洋至「八今島」陸行十里許山勢野態極其秀麗至津頭朝飯又渡小洋地名「其左島」人戶地形尤勝八今至「古縣村」夕歇靈岩士人文昌壽來見又陸行二十里日已夕矣又渡二十里洋至「都初島」津頭店小歇乘夜行十里許至魚蘭村宿鷄已鳴矣○十五日丁丑晴風寒行二十里日已夕矣又渡二十里至津頭少休又渡小洋至「飛禽島」姜秉浩家宿姜以本牧將校退居者也此去黑山六十里云○十六日戊寅晴同主人及一行登津頭高頂西望大洋及黑山山勢東南北觀諸島峯巒峯頭岩底有小井大旱不喝其味清甘謂是孤雲先生指示開拓者云其說極荒唐午飯後乘船十里餘出大洋懸蓬行半洋有「都事岩」前有「金吾」一行滄死於此船人擊鼓祭之舟行至此則雖無風之日波濤汹涌高低蕩漾不可放心迫曠至黑山一名「牛耳島」亦謂之「小黑山」下陸宿于本鎮作廳別將楊文煥來見○十七日己卯晴早起定頓于島民文寅周家金吾監圍籬呼主人炊飯而食之裁家書付觀汝使隨都事一行而出去自「多慶津」至「岩泰島」六十里岩泰至「唐頭津」三十里唐頭津至飛禽「官廳島」三十里官廳島至小黑山六十里合一百八十里是爲直路里數水陸之行縱橫之於極不便利無論其節「登船六七日」然後始爲入來

指掌岳韻

化工分却一技山 強伴衣冠魯避俗

擲入洪濤浩渺間 尋常炎疫尙偷閒

地泰箕域書無徵 此刻雖微關係大

曆閱峯禎歲幾還 爲教洞主莫輸刪

一部陽秋向碧山 居人莫謂乾坤窄

摩挲仔立草堤間 隙地從看日月關

非有良工心裡運 織方版籍隨時變

誰模舊迹眼中還 老石千年應不刪

勉菴崔益鉉

● 指掌 岳韻

宇宙造化가 한편의 山을 나누어서
 큰바다 물결에 던지니 黑山島로다
 不得已 衣冠을 쓰고 世俗을 避하니
 苟且히 한가함을 타지 않을 수 없도다
 땅은 箕封江山인데 글로는 證據가 없고
 千曆은 高宗年代를 지났는데 해는 몇번이나 돌았느냐
 이곳에 새긴것이 비록 적으나 關係는 크니
 世上 사람들아 이 글을 輕率히 깎지 마소
 西洋에 文物이 東洋에 물밀듯이 들어 오는데
 東南洋의 文物은 풀속에 잠겨 있네
 世上 사람들아 乾坤이 狹窄타고 말하지 마소
 조그마한 땅이라도 조차서 보니 넓기 限量없네
 大人들이 마음속 깊이 움진인바 없으면
 옛 舊迹을 닦기 敢히 生覺하리요
 世上人心은 때를 따라서 變하여 가도
 老石은 千年을 지나도 應當 깎이지 않으리라



< 歙山면 천촌리에 있는 勉岩 崔益鉉先生 유허비 >